

산자부, 석유공사·가스공사 사장 10월말 선임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10월말 선임될 전망이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10월6일 기자 브리핑에서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사장을 10월말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3차 공모에 전직 공사 임원 4명과 에너지업계 최고경영자(CEO) 출신 3명, 민간기업 전문경영인 9명, 정치·관료 출신 2명, 전직 정부출연연구 기관장 1명, 해외교포 2명 등 모두 21명이 응모했다.

또 2차 공모인 석유공사 사장에는 전·현직 공사 임원 2명, 에너지업계 CEO와 민간기업 전문경영인 각각 4명, 교수와 재외교포 각각 1명 등 12명이 지원했다.

이희범 장관은 “응모자 가운데 가스공사는 10명, 석유공사는 5명을 선발해 인사검증 등을 거쳐 10월말 사장을 각각 최종 선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스공사는 오강현 전 사장이 3월 경영행태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대주주인 정부에 의해 해임된 뒤 4월과 6월 1차, 2차 공모를 각각 실시했고, 석유공사는 8월 이억수 전 사장 임기만료에 앞서 후임 사장을 공모했지만 각각 인사검증 과정에서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인선이 무산됐었다.

<화학저널 2005/10/10>